

# 반도체 사이클, 글로벌 호황기... 전세계 곳곳서 깜짝 실적

코로나로 서버·IT부분 확대 영향 SK하이닉스-인텔 '빅딜' 긍정적 D램 가격 ↓... 실적하락 전망도

반도체 업계가 3분기 호실적 파티를 이어가고 있다. 긍정적인 4분기 전망으로 공포감도 다소 사그러들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시작된 것은 큰 악재로 꼽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20일(현지시간) 3분기 매출 38억2000만달러에 순이익 1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 기준으로 전년(37억7000만달러) 대비 소폭 개선됐으며, 시장 전망치도 10% 이상 돌파했다. 4분기에도 매출액 35억달러 안팎을 예상하며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TSMC도 3분기 최대 실적을 발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분기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표한 바 있다. 인텔과 AMD 등도 조만간 진행할 실적 발표를 통해 기대 이상 실적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도 서프라이즈가 이어졌다. 마이크론과 난야가 예

상을 넘어선 매출로 기대감을 높인 것. 삼성전자도 잠정실적을 통해 반도체 실적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SK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투자도 지속 중이다. 램리서치와 어

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도쿄 일렉트론(TEL)뿐 아니라 국내 관련 업계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주가도 덩달아 상승세다.

코로나19가 서버와 IT 부문 시장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다. 전세계가 서버 확충에 나섰으며, PC와 스마트폰 등 IT기기 시장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함께 성장하는데 성공, 삼성디스플레이도 다시 LCD 패널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4분기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3분기 실적 개선이 미국 무역재제로 급하게 재고를 확보하려는 화웨이 때문으로 추정됐지만, 실제 시장도 호황을 이루면서 반도체 수요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와 인텔의 '빅딜'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왔다. 인텔이 10조원

을 확보하면서 다소 주춤했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투자할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다. 인텔은 CPU를 중심으로 서버와 PC 시장 표준을 이끌어왔던 만큼,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진 모습이다.

단, 공포감이 완전히 사그러들지는 않았다. 당장 D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21일 DDR4 8G 평균 가격은 2.9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여전히 기존 전망과 같이 10% 수준 하락 가능성도 높다.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대되는 것도 악재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일부 지역을 폐쇄했다. 일부 상점에도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장도 혼돈에 빠졌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국내 OCIO 시장 100조... 운용재량은 제한적

(외부위탁운용관리)

운용자산 80%, 대형 공적기금 집중 저금리 장기화로 기관 위탁 수요 ↑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시 더 활성화

국내 외부위탁운용관리(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존 연기금 위주 시장에서 일반법인, 대학기금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운용의 재량이 해외 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CIO 제도란 고액자산가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자산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국내 OCIO 시장 확대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국내 OCIO 시장은 100조원에 달한다.

아직까지는 전체 운용자산의 80% 이상이 주택도시보증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공적연기금, 민간연기금 등 대형 공적기금에 집중돼있는 모양새

올해 진행된 OCIO 사업	
강원랜드	15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조400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8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관 선정중)	1조3000억원
이화여대(기관 선정중)	1500억원

다. 하지만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자금을 위탁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축소된 펀드 시장도 OCIO 수요 급증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OCIO 사업으로는 1500억원 규모의 강원랜드, 1조4000억원 규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28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

공)과 이화여대는 각각 1조3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OCIO 기관 선정 작업 중이다. 이 중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사업 성과보상기금 운용을 위한 기관을 선정하는데 총 11곳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몰렸다. 자산운용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OCIO 사업에 기존 증권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 이미 20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국내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 지배구조가 도입되면 국내 OCIO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처럼 외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되면 필요할 경우 일부 자금을 운용기관에 위탁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국내 OCIO 시장은 위임되는 업무의 범위와 운용의 재량이 해외 시장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7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비대면 중기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

중기중앙회 등 단체·기관 16곳 참여 네트워크 강화·제도 개선 모색 등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범중소기업계가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뭉쳤다.

비대면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 차원에서 네트워크 강화, 제도 개선 모색, 공동 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이참에 중소기업계가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간협의회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연구원 등 16개 단체·기관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맡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연택트 시대를 맞아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대응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영기반 마련과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은 물론,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경제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세대(5G)통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농업 분야의 스마트팜, 제조 분야의 3D프린팅, 도소매·물류·유통분야의 드론·자율주행, 숙박·음식점의 무인매장, 무인텔, 로봇서빙 그리고 정보통신·교육서비스분야의 OTT(Over The Top) 서비스, 인터넷 교육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병헌 원장은 "비대면 사업은 기존의 산업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식별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산업은 실체가 없는 만큼 제정될 관련법의 정책 대상은 '비대면 기업'과 '비대면 사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는 이날 결성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전환 촉진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비대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기업, 수익·안정 악화... "이자도 감당 못해"

한은 '2019년 기업경영분석' 작년 제조업 매출액 감소세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매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차입금 의존도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74만1408개의 매출액증가율은 0.4%로 전년 4.0%에서 낮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장비,

화학제품, 석유정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1.7%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기가스 등 비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3%로 전년 4.0%에서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2.3%로 하락폭이 컸고, 중소기업은 4.2%로 집계됐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모두 악화됐다.

작년 기업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2%,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7%다. 전년 각각 5.6%, 5.3%에서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매출액영업이익률 7.3%→4.4%, 매출액세전순이익률

7.3%→4.2%)은 전자·영상·통신장비를 중심으로 하락했고, 비제조업(4.3%→4.0%, 3.6%→3.3%)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7.2%→4.8%, 6.8%→4.2%), 중소기업(3.5%→3.4%, 3.1%→3.1%)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

이자보상비율은 326.5%로 전년 470.9%보다 악화됐다. 영업이익률은 하락한 반면 금융비용부담률은 상승한 탓이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